

Japan Weekly Digest

2012. 8. 18 ~ 2012. 8. 24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, 대규모 풍력 송전망 정비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고용정책의 전환
- 일본의 태양전지기업들 때이른 구조조정
- 일본, 한·중FTA 선행을 경계, 독도문제와 별도로 한·중·일 FTA 협의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1 주간경제초점 : 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, 대규모 풍력 송전망 정비

□ 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 시행에 이어, 풍력발전에 대한 대규모 지원

- 일본정부가 풍력전기를 소비지역에 송출하기 위한 송전선을 전력회사, 풍력발전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키로 함. 민·관 3,000억엔의 기금을 조성, 우선 홋카이도와 동북지역에 중점적으로 건설할 방침임.
- 일본정부는 풍력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기둥으로 설정, 초기투자 대상인 송전선을 조성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.
- 풍력발전에는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, 바람이 연중 내내 강하게 부는 장소가 적합.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나 동북 연안지역 등이 최적지이나 전기를 송출하기 위한 송전선이 없는 실정임.
 - 사업자들로서는 대규모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점이 풍력발전분야에 대한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.

□ 민·관 특별목적회사(SPC)를 통한 지원

- 민·관 특별목적회사(SPC)를 설립, 송전선 건설을 위한 기금을 운용. 기금의 출자비율은 정부, 전력회사, 풍력발전사업자가 약 30%씩. 일본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1,000억엔까지 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약 300억엔을 계상할 계획임.
 - SPC는 송전선을 사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
- 출자기업은 홋카이도, 동북지역, 동경 등 3개 전력회사 외에 J과워, 토요다 통상 계열의 유라스에너지홀딩스, 코스모석유 계열의 에코파워 등이 유력하며, 메인뱅크(주거대 은행)로부터 용자를 받게 됨.
- 중점 정비구역은 홋카이도 북부의 와카나이 지구, 남서부의 토마히가시(苫東)지구, 아오모리현 시모키타(下北)반도, 아키타현 북서부 등 총 6개 지역.

□ 원전의존도에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25%~35%로

- 일본정부는 원전의존도를 2030년 시점에서 0~25%로 하는 3가지 선택방안에 관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, 탈원전 아니면 원전유지 중 어느쪽을 선택하더라도 재생에너지는 2010년도 실적치의 2배 이상인 25%~35%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.
 - 재생에너지중 발전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풍력은 2030년까지 5%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.

- 그러나 2011년도 풍력발전설비는 약 250만kw로 발전량은 전체의 1%가 채 못 됨. 미국의 약 4,000만kw, 독일의 약 2,700만kw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.
- 7월에 시작된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전량매입제도하에서도 태양광이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의 보급을 지원해나간다는 것

□ 최초의 국가지원 송전망 정비사업

-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지역독점 전력회사가 생긴 이래, 국가가 송전망 정비를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. 일본정부는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을 분리,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송배전 담당 등을 중심으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.
- 풍력용 송전선 정비는 전력제도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.
-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이거나, 송배전부문의 투자·운영을 중립화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반정비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견해가 있음.

□ 재생에너지 보급과 부담의 균형이 과제

- 한편, 소비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송전선을 건설하는 데는 대규모 투자나 유지비용이 필요.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세금이나 전력요금의 형태로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, 재생에너지 보급과 부담의 균형을 여하히 맞출것인가가 과제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고용정책의 전환 : 실업급부 중심에서 탈피, 산업구조 전환 지원에 역점

-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용창출을 위해 도도부현이 주력하고 있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. 내년부터 대학에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, 기술개발이나 인재육성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이 기업에 저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.
- 구체적으로는 실업급부 중심의 고용대책을 재검토, 산업구조 변혁을 통한 인력 수요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성·청간 연대 등 수직적인 행정을 배제한 체제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
- 도도부현이 기업이나 대학, 금융기관에 의한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성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. 후생성은 노·사·전문가로 구성된 제 3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응모 계획가운데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을 선정.
 - 후생성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는데, 금액은 도도부현이 제시한 계획에 따라 교부.
- 성장분야에 필요한 경영컨설턴트나 기술자의 고용,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인재 육성, 대학의 기부강좌 개설 등도 지원책에 담고 있음.
 - 협의회에 가입한 기업이 신규로 인재를 고용하는 경우 종래 고용조성금을 포함, 시설정비나 운전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자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
 - 지원대상은 주요 산업이 아니고, 종래부터 고용상황이 악화된 지역과 리먼쇼크 이후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회복이 더딘 지역임.
-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.
 - 예를 들면 시마네현은 전국에 비해 낮은 제조업 비율이 높이기 위해 제조업 유치에 필요한 인재육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.
 - 시즈오카현에서는 수송기계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식품 관련산업이나 건강산업을 육성하고 있음.
 - 후생성은 이들 모델이 될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에 노하우를 제공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음.
- 그러나 이러한 시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타 성·청과의 연대나 역할분담이 중요.
 - 내각부에는 이미 지역재생 명분으로 도도부현의 협의회를 활용하는 제도가 있음.

- 지역재생과 고용창출, 산업육성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, 경제산업성 등과의 연대는 충분치 못한 실정.
- 따라서 부처별 수직적 행정에 의한 병폐를 피하기 위해서는, 성장전략면에서 정부의 사령탑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.

□ 일본의 태양전지기업들 때이른 구조조정

- JX일광일석에너지와 산요전기가 각각 공동출자회사인 산요ENEOS솔라를 청산하기로 결정
 - 산요ENEOS는 2009년 1월 설립, 2015년까지 약 1,000억엔을 투자하여 「박막계」라 불리는 태양전지를 연간 100만kw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중국기업들의 공급확대로 가격하락에 직면, 2010년에 사업을 중단
- 중국 등 해외태양전지메이커들은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시장점유율을 높여오고 있음. 일본제품보다 10~30% 가량 싸고, 특히 사업채산성을 중시하는 태양광발전소들로부터의 수요가 크게 증가
 - 일본태양광발전협회에 의하면 2008년에 1% 이하였던 수입품의 일본시장점유율이 2011년에 20%를 상회
- 중국기업들은 품질이나 서비스면에서도 경쟁력을 강화. 세계 최대 태양전기업인 선테크파워는 7월 하순 일본 나가노현에 테크니컬서포트센터를 설계, A/S 및 품질검사체제를 강화
- JX일광일석에너지와 산요는 연료전지사업 분야에서도 공동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, 이 사업은 계속할 방침
 - JX일광일석에너지는 파나소닉 등 여러 태양전지메이커들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,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도 진출
 - 산요전기의 태양전지사업은 모기업인 파나소닉과 통합, 금년중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원료에서 조립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하는 공장을 가동기로 함.
- 한편, 샤프도 일본내 생산을 축소. 태양광사업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제도 재검토 등 태양전지를 둘러싼 사업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, 일본기업들이 잇따라 태양전지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음.
 - 샤프는 가쓰라기(葛城 : 나라현 소재)공장의 생산을 대폭 축소, 사카이(오사카 소재)공장에 집약시킬 방침

□ 일본, 한·중FTA 선행을 경계, 독도문제와 별도로 한·중·일 FTA 협의
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, 일본이 한·중FTA를 선행을 경계, 독도문제와 별도로 한·중·일 FTA 협의에 나섬.
- 한·중·일 FTA준비회의(차관급 회의)가 21일 중국 칭타오에서 개최, 11월 교섭을 위한 향후 일정을 협의.
- 일본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교섭참가를 보류해야만 한다는 일본내 의견도 있으나, 어디까지나 사무레벨의 협의로서 영토문제와 관계 없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
-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한·중 FTA체결을 일본과의 통상교섭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, 일본으로서는 한·중·일 3국간 틀을 견지하려는 의도도 있음.
 - 가령 한·중·일FTA 교섭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한·중 FTA가 선행하는 경우, 고성장의 중국시장에서 일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.
- 한편, 2004년 이후 교섭이 중단된 한·일 FTA는 교섭재개가 멀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, 재개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무레벨에서의 협의를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도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세라는 것
- 일본으로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(TPP) 교섭참가가 결정되면, 한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한·중·일 FTA준비도 가속화될 전망. 그러나 일본의 정국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TPP전망도 밝지만은 아님.

3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미쓰이조선	2012.8.18	발전설비	중국/중경내덕	자본제휴/합작회사 설립, 바이오마스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현지판매 출자비율 50%
제이테크토	2012.8.20	파워스티어링	브라질	직접투자/공장건설, 연산 60만대, 투자규모 30억엔
미쓰이스미토모은행	2012.8.20	이슬람금융	사우디	융자/이슬람금융방식으로 공항사업에 융자, 융자규모 600억엔
스미토모상사	2012.8.21	냉동 생지	뉴질랜드/야로즈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40억엔
키무라탄	2012.8.21	의류	중국	직접투자/도매판매회사 설립
신일철화학	2012.8.21	전극원료 및 타이어첨가제	중국	직접투자/공장 설립. 투자규모 130억엔
쓰바키모토체인	2012.8.21	산업용 큰베이어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공장건설, 투자규모 10억엔
미쯔비시화학	2012.8.21	염화비닐콤파운드	미국/애솔만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10억엔 이하
마르에쓰	2012.8.21	식품	중국/소령전기집단	자본제휴/합작으로 식품슈퍼사업, 합작비율 70%
국제석유개발제석	2012.8.22	원유	앙골라	직접투자/원유생산광구의 권익 취득
소우지츠	2012.8.23	발전소건설	베트남/베트남 전력공사	수주/한국 대림산업과 공동수주, 수주가액 280억엔
후지필름	2012.8.23	SNS	중국/인인공사	업무제휴/인인망 서비스 제공
미쓰이스미토모은행	2012.8.24	금융서비스	캄보디아/아클레다은행	업무제휴/무역금융 등 노하우 제공
덴츠	2012.8.24	광고	영국/이지스그룹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약 4,000억엔
미쓰이물산	2012.8.24	상업시설용 변기	인도/TOTO인도법인	직접투자/30%출자, 투자규모 약 8억 5,000만엔
TANAKA홀딩스	2012.8.24	금 도금액	한국/희성금속	생산제휴/LG그룹과의 합작회사인 희성금속에 생산위탁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일본의 엘렉트로닉스 산업 : 위기에 직면한 산업 분석』 미쯔이전략연구소, 8월 18일

*출처:http://mitsui.mgssi.com/issues/report/r1208i_nishino_1.pdf

(2) 『일본경제전망 : 정책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일본경제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8월 18일

*출처:http://www.mizuho-msrc.com/dynmc/gcnt.php/DL0000007058/01/11/1208_keizaiyosoku_jp.pdf

(3) 『일본경제전망 : 디플레의 원인과 정부·일본은행에 요구되는 정책대응』

다이와종합연구소, 8월20일

*출처:<http://www.dir.co.jp/souken/research/report/japan/monthly/12082001monthly.pdf>

(4) 『중소기업의 「생산거점을 갖지 않는 해외전개전략」』 일본정책금융공고, 8월22일

*출처:http://www.jfc.go.jp/common/pdf/topics_no49_1207.pdf

(5) 『국제비교로 본 중국경제 : 세계경제 중국의 위치변화와 금후 방향성』

닛세이기초연구소, 8월22일

*출처: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nlri_report/2012/report120821.pdf